

#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

(금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2

## 감추어진 생활을 함으로써 왕국 생활을 함

성경: 사 45:15, 37:31, 마 6:2-4, 5-15, 16-18, 14:22-23, 시 42:7, 아 4:12

### I. 우리는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심으로 감추어진 생활을 사신 주님의 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 마 14:23, 비교 눅 6:12.

A. 주님은 무리와 함께 기적(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오천 명을 먹인 기적)의 결과 안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 산에서 기도하시며 홀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 마 14:14-23.

1. 주님은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시려고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그분을 떠나게 하셨다 — 마 14:22-23.
2.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홀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이것은 천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아버지와 하나 되시고, 땅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아버지와 함께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분은 외딴곳에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혼자 아버지를 접촉하시기 위해 모든 사람,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에게서도 떠나시어 산에서 기도하셨다.

B.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산 위에서’, ‘기도 가운데’라는 세 가지 표현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

1.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자주 혼자서 기도해야 한다.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홀로 주님께 기도할 때만큼 깊이 주님을 누릴 수 없다.
2. 심지어 주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홀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마 6:6).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친밀하시며,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느끼게 된다.
3. 우리는 무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을 떠나서 더 높은 수준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더 낮은 수준에 있는 땅에 속한 것들을 멀리 떠나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우리는 무리와 분별되어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홀로 은밀하게 아버지와 함께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어야 한다.

### II. 왕국 백성의 원칙은 의로운 행실, 곧 구제하는 것(마 6:2-4)이나 기도하는 것(5-15절)이나 금식하는 것(16-18절)과 같은 행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고, 감추어진 생활을 하는 것이다.

A. 세 가지 각각의 예시에 관해서 주님은 ‘은밀한’이라는 말을 사용하셨다(마 6:4, 6, 18). 우리의 아버지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인 왕국 백성은 아버지의 은밀하고 감추어진 임재 안에 살며 그러한 아버지의 임재를 주의해야 한다.

B. 왕국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서 비위지고 겸손해진 영으로 살며, 순수하고 단일한 마음으로 행하는 왕국 백성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육체 안에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하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C. 은밀하게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행한 결과는 육체와 자아가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사회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락한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선한 행실을 과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

는다면, 그러한 선한 행실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는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육체는 이목을 끌기를 좋아한다.

- D. 성장을 드러내는 성도들은 건강한 방식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은밀한 생명의 성장, 곧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은밀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은밀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과 교통해야 한다.
- E.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를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만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과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 F. 왕국 백성은 반드시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어떤 체험을 가짐으로써,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를 접촉하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은밀한 누림을 체험하며, 아버지에게서 어떤 은밀한 응답을 받아야 한다 — 마 6:6.
- G. 언제든지 우리의 의로운 행실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생명의 성장을 크게 방해한다.
- H. 우리의 인간 생명은 내보이고 전시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다. 위 선자는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진 사람이다.
- I. 우리는 결코 자신의 타고난 생명으로는 은밀한 중에 감추어진 생활을 하는 것을 실행할 수 없다. 이것은 오직 드러내기를 즐기지 않는 생명인 신성한 생명 안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왕국 백성이 되는 것에 진지하다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의 감추어진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을 배워야 한다.
- J. 우주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밀하시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은 언제나 감추어진 채로 있을 것이다.

### III.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 사 45:15.

- A.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의로우신 분, 은혜와 자비로 가득하신 분으로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 B.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그리고 그들의 개인 생활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그분 자신을 감추신다.
  - 1. 하나님은 감추어지기를 좋아하시지만 우리는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기를 열망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한다.
  - 2.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분명히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타난 임재를 보여주지 않으실 때 엘리야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 — 왕상 19:9-18.
    - a.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했고, 하나님도 엘리야의 원함을 아셨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
    - b.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 왕상 19:12.
    - c.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신약 시대 안으로 안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가리킨다.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천둥 치듯이 말씀하시지 않고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씀하신다 — 비교 요일 2:27.
    - d. 엘리야는 자신만이 유일하게 남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칠천 명을 그분 자신을 위해 남겨 두셨다고 말씀하심으로 엘리야에게 매우 부드럽게 대답해 주셨다 — 왕상 19:18, 비교 롬 11:2-5.

- e. 엘리야는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에 따라서만 상황을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칠천 명의 이기는 이들을 그분 자신을 위해 은밀하게 남겨 두셨다. 하나님의 활동은 이처럼 감추어져 있어서 심지어 신언자 엘리야까지도 그것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 C.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감추어진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강한 영향력과 위대한 이상과 엄청난 계시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일은 우리 존재의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1.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그분 안에 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조용하신 하나님이시며, 너무나 조용하셔서 때로는 아무도 그분의 임재를 알아차릴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
  2. 우리를 안내하시는 그분의 가장 친밀한 방식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안내하고 계신다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분의 안내를 받아 왔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이러한 조용한 내적 활동에 의해 가장 중요한 안내들을 받는다.
- D.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실 목적으로 오셨을 때, 그분은 인간 생명 안에, 즉 그 용모가 ‘상하였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인간 생명 안에 자신을 감추셨다 — 사 52:14, 53:2.
1. 그분은 보잘것없는 지역인 갈릴리의 작은 동네 나사렛 출신이셨고, 유대인들은 그 동네에 관해서 어떤 신언자나 저명한 사람도 그곳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 요 1:46, 7:52.
  2. 따라서 그분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신언자이시라는 것을 믿기조차도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계셨다 — 비교 골 2:9.
  3. 또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에 나셨고, 자라서 목수가 되셨다. 그분은 삼십 세가 되기까지 매우 평범한 목수로서 매우 낮은 방식으로 일하셨다. 누가 그분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겠는가?
- E.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시를 싫어하시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드러내어 일하시기보다 은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 마 17:1-9, 요 20:14-17, 눅 24:13-37, 요 20:24-29, 사 39:2-8.
1.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뵈는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뵈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믿는 이들이 뵈는 적도 없는 분을 사랑하는 것은 기이하고 비밀한 일이다 — 벰전 1:8.
  2. 주님의 부활 이후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위한 주된 훈련은 그분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노선과 함께 가는 것이었다.
  3. 그리스도를 중심과 전부로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것은 보이는 영역 안에 있지 않고, 믿음에 속한 보이지 않는 분위기와 영역 안에 있다 — 고후 4:13, 16-18, 5:7, 히 11:1, 엡 3:17상, 딤후 1:4하.
- F. 우리가 자신의 무능함을 가장 잘 의식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신다 — 고후 12:9-10.
1.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그리고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
  2. 우리의 책임은 그분의 내적인 음성, 곧 그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에 반응함으로써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다. 그 음성은 너무나 우리 자신의 느낌의 일부인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좀처럼 그것을 음성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3.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그 음성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은밀하지만 끊임없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 IV. 시편 42편 7절은 “깊은 곳이 깊은 곳을 부르며”라고 말한다.

- A. 다른 이들은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 것에만 깊은 속에서 반응할 수 있다.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다른 이들의 깊은 곳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 B. 왕국 생활은 깊은 곳에 있는 생활, 곧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활이다 — 사 37:31, 비교 행 6:7, 12:24, 19:20.
- C. 한 면에서 우리는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좋은 땅인 우리 마음의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하며(마 13:23),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 있는 식물로서 좋은 땅의 실재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골 2:6-7).
1. 좋은 땅은 세상적인 통행으로 굳어지지 않고 감추어진 죄들이 없으며 이 세상의 염려도 없고 재물에 속지 않는 좋은 마음을 상징한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게 된다’ — 골 2:19.
  2. 우리는 좋은 땅의 실재이신 그리스도 안에 심어졌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특별히 아침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그분을 흡수해야 한다.
- D.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흙이 얇게 덮인 바위들 위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사람이 말씀을 받는 네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마 13:4-8, 18-23.
1. 주 예수님은 이러한 서로 다른 상태들 중의 하나인 바위들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상태에 대해 말씀하신다. 즉 표면에 흙이 얇게 덮여 있고 그 아래에는 바위들이 있는 것이다. 씨가 이런 종류의 땅에 떨어질 때 그 씨는 곧 싹을 내지만, 해가 돌아 내리쬐자마자 이 싹은 뿌리가 없어 말라 버린다 — 마 13:5-6.
  2.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토양 아래에서 일어나는 성장이다. 잎은 무엇인가? 그것은 토양 위에서 일어나는 성장이다.
  3. 다시 말하면, 뿌리는 감추어진 생활이며, 반면에 잎은 드러난 생활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문제점은 겉으로 보이는 생활은 많이 있지만, 비밀한 생활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감추어진 생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4. 우리의 모든 체험이 드러난다면, 이때 우리의 모든 성장은 위를 향한 것이고, 아래를 향한 성장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뿌리 없이 잎만 있는 사람인 것이며, 얇은 흙 위에 있는 것이다.
  5.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미덕을 과시하고, 자신의 존재의 깊은 곳에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뿌리가 없는 것이다. 그는 시험과 유혹의 때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아래로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 E.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체험들이 필요하다 — 고후 12:1-4.
1. 바울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고 낙원으로 이끌려 갔지만, 십사 년이 지날 때까지 그 체험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바울의 뿌리는 토양 아래 깊이 박혀 있었다.
  2. 우리가 바울의 일을 갖기 원한다면 바울의 ‘뿌리’를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외적인 행실을 갖기 원한다면 바울의 내적인 생명을 가져야 하고, 바울의 드러난 능력을 갖기 원한다면 바울의 은밀한 체험을 가져야 한다.
  3. 이것은 우리가 간증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체험들이 감추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 비교 고후 4:5.

4. 뿌리가 없는 것은 어떤 감추어진 보물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감추어진 생활이나 감추어진 체험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어떤 체험들은 덮인 채로 남아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 비교 사 39:2-8.
- F. 우리가 주님과 갖고 있는 비밀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셔서 무언가를 드러내실 때에만, 우리는 용기를 내어 그것을 드러낸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체험을 어느 형제에게 교통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감히 그것을 억누를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법칙, 곧 교통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체들 사이의 생명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갖고 있는 감추어진 부분, 곧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2. 우리의 생활에 깊이가 없다면, 우리의 피상적인 일은 다른 이들의 삶에 피상적인 영향만을 줄 것이다. 오직 ‘깊은 곳이 깊은 곳을 부른다’.
- G.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과의 내적이고 감추어진 그리고 중단되지 않는 교통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호 14:5). 이런 종류의 생활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 호 14:5-7.
- H. 깊이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통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가 4장 12절은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라고 말한다.
1. 주님을 사랑하여 추구하는 이는 자신의 영적 진보의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동산이 되었다.
  2. 그녀는 열린 동산이 아니라 잠근 동산이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은 그녀가 사랑하는 분의 기쁨을 위한 것이며, 다른 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3. 오늘날의 믿는 이들이 조금 더 잠그고 더 단단하게 봉한다면, 그들의 일은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4. 우리가 깊이 뿌리를 박고 깊은 곳에서 감추어진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서 더 깊은 일을 하시기를 바란다.

##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심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마 14:23, 비교 눅 6:12).

#### 무리와 함께 기적의 결과에 머물지 않으셨음

주님은 무리와 함께 기적의 결과에 머물지 않으셨고,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시어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 만일 우리가 어떤 곳에 가서 큰 성공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즉시 그곳을 떠나겠는가, 아니면 이 큰 성과를 누리기 위해 머물겠는가? 우리는 주 예수님의 본을 보고 따라야 한다. 그분은 그분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결과 안에 머물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분은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다. ‘홀로’라는 말은 매우 의미가 깊다.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알리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을 것이다. 그분은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홀로 함께하시기 위해 그들을 떠나셨다. 나는 이 세 구절, 곧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기도 가운데’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와 함께 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본을 배워야 한다. 그분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신 것은 그분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셨음을 뜻한다. 그분이 산 위로 올라가신 것은 그분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음을 뜻한다.

다른 사람들과 기도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혼자 기도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홀로 주님께 기도할 때만큼 깊이 주님을 누리지 못한다. 심지어 주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마 6:6).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근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가까운지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무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을 떠나서 더 높은 수준에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더 낮은 수준에 있는 땅에 속한 것들을 멀리 떠나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우리는 무리와 분별되어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홀로 은밀하게 아버지와 함께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산에서 기도하는 것의 의미이다.

### 기적의 결과를 누리는 데 참여한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도록 아버지께 구함

우리는 왜 주 예수님께서 이 기적 후에 곧바로 산으로 가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은 그 이유를 제시한다. 이 절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께서 “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여 준다. 주님은 음식을 먹은 이들에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셨으리라 믿는다. “아버지, 당신의 축복 아래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축복을 통해 당신은 오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들은 썩어 없어질 양식만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당신을 양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제가 당신의 보내심을 받은 이인 것을 아십니다. 오직 저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식으로 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제가 물질적인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속한 양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들을 더욱 축복하시기 위해 기도하셨다고 믿는다.

그분께서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신 것은, 기적의 결과를 누리는 데 참여한 모든 이들이 썩어 없어질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구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요청하신 것을 암시한다. 또한 그분께서 아버지께 의해 보내심을 받고 확증을 받으신 분이시며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사람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도록 아버지의 축복을 구하신 것을 말한다. 오천 명이 그분에 의해 먹고 배부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분이 능력 있는 사람의 아들이심은 알았지만, 사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아버지께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깨닫지 못했다. 그분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바로 그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은 요한복음 6장에서 또 한 번의 가르침을 주셨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심을 계시한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이 떡이 바로 그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63절) 요한복음 3장 34절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며 그 영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한다. 그분을 이런 방식으로 아는 것은 계시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다.

##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으심

그분께서 기도하시러 홀로 산에 올라가신 것은, 또한 그분이 기적으로 음식을 먹은 오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관해 아버지께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자 하셨음을 보여 준다.

마태복음 14장의 이 결정 연구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내재적인 의미를 보기 위해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계시가 필요한지를 볼 수 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는 것은 쉽지만, 이러한 큰 기적을 행하신 분에게서 배워야 할 깊은 공과를 아는 데에는 계시가 요구된다. 이러한 공과는 내재적이고 깊고 생명에 속한 것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외적인 행하심에 감탄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생명의 공과들과 관련된 이 모든 세부 항목들을 보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방식에서 그분께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한다. 우리는 주님께에서 이러한 살아 있는 공과를 배워야 하며, 그럴 때 하나님-사람의 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위트니스 리 교봉 메시지, 14권, 하나님-사람의 생활, 185-188쪽)*

## 깊은 속에 있는 뿌리

말씀을 전하거나 들을 때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안에 들어 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흙이 얇게 덮인 바위 위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사람이 말씀을 받는 네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주 예수님은 이러한 서로 다른 상태들 중의 하나인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상태에 대해 말씀하신다. 즉 표면에 흙이 얇게 덮여 있고 그 아래에는 바위가 있는 것이다. 씨가 이런 종류의 땅에 떨어질 때 그 씨는 곧 싹을 내지만, 해가 돌아 내리쬐자마자 이 싹은 뿌리가 없어 말라 버린다.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토양 아래에서 일어나는 성장이다. 잎은 무엇인가? 그것은 토양 위에서 일어나는 성장이다. 다시 말하면, 뿌리는 감추어진 생활이며, 반면에 잎은 드러난 생활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문제점은 겉으로 보이는 생활은 많이 있지만 비밀한 생활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감추어진 생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당신이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한 중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생명의 부분은 어떤 것인가? 당신이 밖의 좋은 행위를 주의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밖의 좋은 행위 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가? 만일 당신의 모든 영적 체험을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뿌리가 없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미덕을 사람들 앞에 다 보이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밑에 있는가? 만일 당신의 모든 체험이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라면, 당신의 모든 것은 위로 자란 것이지 밑으로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잎만 있고 뿌리가 없는 사람이고, 흙이 얇은 사람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한 면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몸의 생명이 있어야 함을 보아야 할 뿐 아니라, 또 한 면으로 몸의 한 지체인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매우 개인적인 것임을 보아야 한다. 이 몫은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것이며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다. 만일 이 부분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체로서의 나의 특징을 잃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특별한 용도가 없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특징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할 때, 당신은 곧 메마르게 된다.

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것은 매우 특별하다. 주님은 한 면으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마 5:14)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공개적인 것이다. 또 한 면으로 주님은 “그러나 그대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대의 구제를 은밀한 가운데 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기도할 때, 그대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값이 있습니다.”(마 6:3-4, 6)라고 말씀하셨다. 한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공개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감추어져야 하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 주지 않은 많은 미덕들이 있어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선행을 과시하고, 자신의 존재의 깊은 곳에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뿌리가 없는 것이다. 그는 시험과 유혹의 때에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여러 해가 된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체험이 얼마나 되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것 외에 내게 남아 있는 체험이 얼마나 되는지 볼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아래로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 깊은 곳의 체험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참으로 무익하지만,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기에”(고후 12:1)라고 말한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을 쓴 것은 자신에게는 무익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한 것이다. 바울이 ‘주님의 이상과 계시’를 말한 것은 부득불 말한 것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이다. 많은 형제자매들은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조금 받을 때 나팔을 불어 즉시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상과 계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이상과 계시에 대해 말하면 자신에게 유익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왜 바울은 말했는가? 그것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에 대해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말한 것이다.

바울은 모든 계시를 사람에게 말해 주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십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습니다.(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고후 12:2)라고 말했다. 십사 년 전의 체험을 이제야 말한 것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칠 년 동안 보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십사 년 동안이나 감추어 두었다. 하나님의 교회는 십사 년 동안 바울의 이러한 체험을 알지 못했다. 십사 년 동안 사도들은 바울의 이러한 체험을 알지 못했다. 바울은 뿌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십사 년 전에 체험한 것, 곧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것에 관한 이야기 전체를 우리에게 말해 주면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말, 곧 사람으로서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말을 들었습니다.”(3-4절)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도 바울의 이 체험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뿌리로 남아 있다.

형제자매들이여, 뿌리는 중요한 것이다. 당신이 바울의 일을 갖기 원한다면 바울의 ‘뿌리’를 가져야 한다. 바울의 외적인 행실을 갖기 원한다면 바울의 내적인 생명을 가져야 하고, 바울의 드러난 능력을 갖기 원한다면 바울의 은밀한 체험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의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것들과 특별한 체험이 보존되지 않는 데 있다. 조그마한 체험만 있어도 많은 사람에게 알려 주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생활에서 감추어진 부분이 없고 모두 다 사람 앞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뿌리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의 체험을 보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끄셔서 깊이를 갖게 하시기를 바란다.

### 얕은 생활

이사야서 39장은 바빌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온 것을 듣고 글과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해 말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보전하지 못했다. 성경은 “히스기야가 사자들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구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2절)라고 말한다. 히스



기야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보여 주었다. 그는 분명히 놀라운 방식으로 치료를 받았고, 자신 처럼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는 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에게서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십 도를 물러가게’ (사 38:8) 한 징조를 받고 치료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고 자랑했다. 히스기야가 사람들에게 궁중의 보물들을 보인 것은 그가 십자가의 다름을 받지 않았고 타고난 생명이 다름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해 준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뿌리가 밖으로 드러났음을 분명히 볼 수 있다. 히스기야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빌론 사람도 알았고, 히스기야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바빌론 사람도 다 알았다. 히스기야에게는 뿌리, 곧 보이지 않는 생명이 없었다. 그러므로 신언자 이사야는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빌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사 39:5-6)라고 말했다. 이것은 남에게 보인 만큼 잃어버린다는 말이다. 당신의 생명이 사람 앞에 드러난 만큼 당신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중한 일이다.

오, 자신의 체험을 말하지 않기를 참지 못하고 한번 말하면 통쾌하게 말하려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궁중의 보물들을 사람들에게 보인 것과 같다. 어떤 형제는 “많은 형제들이 병들었다가 나은 후에 간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죽음에는 이르지 않는 병을 앓다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는다면, 다음 간증 집회에서 할 말이 있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 형제는 무엇 때문에 고침을 얻으려고 했는가? 간증하기 위해서였다. 그러한 체험을 추구한 것은 자기가 할 말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다. 오, 이렇게 얕은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손실을 입게 하며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

### 간증을 하되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함

그렇다면 우리는 간증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바울도 간증을 했고, 역대로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간증을 했다. 우리도 마땅히 간증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간증하는 것과 자신의 체험을 나타내기를 좋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간증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말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과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다. 간증을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하는 것이지, 식사한 후에 차를 마시며 한담하는 것 따위가 아니다. 많은 경우, 한담하는 말은 영적인 보배를 잃게 한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는 마땅히 간증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간증을 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방면에서 도움을 받게 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도 간증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임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바울은 십사 년 동안 그의 체험을 감추어 두었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 바울이 십사 년 전의 체험을 말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들려주지 않았다. 그는 십사 년 전의 일을 언급했을 뿐 그들에게 과정을 말해 주지 않았고, 단지 계시를 얻었고 은밀한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고 했을 뿐 어떤 말을 들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도 셋째 하늘은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의 보물은 무엇인가? 우리의 금과 은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보물은 무엇인가?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 우리는 금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은은 십자가의 구속에서 나온 것이며, 향료는 우리 자신이 상처를 받음으로 흘러나온 것임을 알아야 하고, 왕국에 관한 모든 것이 보물이며,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얻은 주님의 모든 일이 우리의 무기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교리나 성경의 가르침이나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에서 얻은 것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왕래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음으로 얻은 것들을 임의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간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영적인 체험이 감추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형제자매들이여,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많은 영적인 체험들이 감추어질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드러

내서는 안 된다.

주 예수님도 간증을 하셨지만 그분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간증하는 것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분은 병자를 치료하신 후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당부하신 것을 볼 수 있다. 한번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대의 집, 그대의 친척에게 가서, 주님께서 그대에게 얼마나 큰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공황을 베푸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리십시오.”(5:19)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므로 당신은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일을 뉴스처럼 남에게 말한다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뿌리가 없다고 한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은밀한 가운데 있는 보물이나 생명의 체험이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많은 체험을 덮어 두어야 한다. 만일 덮어 두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 앞에 보물을 펼쳐 놓으면 노략당하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영적 메마름은 드러남과 함께한다. 당신은 간증을 하더라도 바울처럼 “자랑하는 것이 참으로 무익하지만, 내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기에”(고후 12:1)라고 말해야 한다. 사탄의 공격은 특별히 사람이 나타날 때 온다. 모든 나타남은 우리로 하여금 손실을 입게 한다. 병이 치료된 사람 중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간증한다.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간증한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다시 병들게 된다. 어떤 사람이 간증한 후에 같은 방면에서 공격을 받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뿌리가 덮인 사람을 보호하시며, 뿌리가 나타난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뿌리가 나타난 사람은 공격에 노출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간증을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것을 마땅히 감추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서 감추어진 그것을 보호하시며, 또한 그것은 당신의 누림이 된다.

우리의 봉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공훈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통해 일하실 수 있지만, 당신은 그러한 일을 다른 사람이 듣도록 선전하는 재료가 삼아서는 안 된다. 당신이 그것을 나타낼 때 당신의 봉사에서 즉시 죽음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나타낸 만큼 잃게 된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효를 세었을 때 죽음이 들어왔다(삼하 24장).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드러냄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과 갖고 있는 비밀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셔야 우리는 비로소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형제에게 말을 하라고 하셨을 때, 당신은 그것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만일 억누른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는 교통하는 법칙이 있다. 당신이 그 법칙을 억누르면 흐름이 멈춘다. 우리는 소극적이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하루 종일 자신과 자신의 일에만 골몰하며 말을 많이 하고 드러내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한다. 우리는 한 면으로 몸을 알고 몸의 흐름을 알아야 하며, 또 한 면으로는 주님 앞에서 남이 모르는 많은 체험, 곧 우리의 감추어진 부분이 있어야 한다. 뿌리는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

깊은 곳을 향하고 밑으로 뿌리를 내린다면, 결국 당신은 깊은 곳과 깊은 곳이 서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 안에 깊은 것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깊은 곳이 만져진 바 될 것이다. 당신의 깊은 곳의 극히 적은 부분을 만지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빛 비춤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깊은 곳은 깊은 곳을 만지며 서로 부른다. 당신에게 깊은 곳이 없다면, 당신은 단지 표면적인 봉사로 사람에게 외적인 감동만을 줄 뿐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오직 깊은 곳만이 깊은 곳을 부른다. *(워치만 니 전집, 37권, 일반 메시지(1), 65-73쪽)*